

중동 확산 양상에 유가 급등, 인플레이 우려 자극하며 채권·증시 압박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유가 압력에 3대지수 하락, 마감후 DELL 호실적 시간외 강세

- 미 증시는 DOW -0.79%, S&P500 -0.71%, NASDAQ -1.03% 하락. 에너지, 유틸리티, 헬스케어 강세, 임의소비재, 기술주, 산업재 약세
- 미국의 대이란 공습 지속에 국제유가 상승 WTI \$90.2(+5.2%), Brent \$94.7(+4.6%) 7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며 투자심리 냉각. 장중 10Y 국채금리 4.8% 근접
- 매크로 영향에 시클리컬·성장주 중심 약세 뚜렷. 다만, 장마감후 델 테크놀로지 AI 서버 수요 확대에 분기 최대실적 발표로 시간외 상승

미-이란 무력공방전 재개, WTI \$90 대 5주만에 재돌파

-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 설치 시도 저지 및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 목적의 표적공습 단행.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미군 공격 대응을 위한 '단호한 작전'을 시작하며 확산 우려 자극
- 호르무즈 해협 내 원유수송량이 공격이 줄어든 동안 전쟁 이전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가운데, 공격 재개에 따라 재차 위축 가능성 노출되며 유가 상승폭 확대

유가발 국채금리 상승압력 가운데 제조업 지표 둔화

- 8월 ISM 제조업 PMI 54.6 전월·컨센 하회, 8개월 연속 확장국면 유지이나 수치 둔화. 세부지표상 신규주문 56.7→53.7, 생산 58.5→58.3, 고용 52.8→51.2, 수주잔고 55.0→51.8 대체로 둔화된 반면 가격 71.1 전월과 동일한 높은 수준 유지. 수요 및 고용 모멘텀 약화 한편 에너지·원자재 가격 경계 여전
- 7월 JOLTs 구인건수 727.2만건 전월비 증가, 컨센 부합. 제조업 구인건수 58만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반면, 레저·접객업 구인건수 78.3만건 2021년 이후 최저수준. 자발적이직률 1.9% 전월과 유사. 전반적으로 급격한 고용 악화 없이 저채용·저해고 양상 지속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-2.6%	대만 생산 노조가 경쟁사(삼성전자·SK하이닉스) 수준의 이익 공유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는 보도에 주가 하락. 대만 마이크론 노조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, '27 회계연도부터 영업이익의 15%를 성과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원한다' 밝힘. 대만 법상 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해 즉각적 충격은 제한적이나, '35년까지 \$250B 규모의 미국 내 제조 시설 투자계획'과 맞물리며 중장기 비용 부담 우려 확대
NVS	노바티스	+6.0%	경구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후 주가 강세. 이는 앞서 환자 3명 사망 이후 자가면역 질환대상 실험 치료제에 대한 임상 8건을 중단했던 조치 이후 나온 소식
DELL	델테크놀로지	-6.8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외 주가 +6%대 상승 중. 호실적 및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'27 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드언스를 \$25B 상향 제시하며 시간외 주가 급등. 이번 분기 매출은 +58%YoY 증가. 연간 AI 서버 매출 전망치는 전년대비 3배 증가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
PANW	팔로알토 네트워크스	-5.2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외 주가 -1%대 하락 중. AI 관련 리스크로 보안 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발표.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+34%YoY 증가. 수주잔고, ARR, 차기분기와 '27 회계연도 가이드언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. 한편 M&A 행보와 AI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인 콘솔(Console) 인수 계획을 발표
HOOD	로빈후드	-1.2%	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상향에도 불구하고,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주가 소폭 하락. 모건스탠리는 제품 다각화에 따른 기존고객 기반의 수익성(unit economics) 개선을 근거로 투자 의견을 '비중확대'로 상향, 목표주가를 \$124→\$150로 상향 조정
GPRO	고프로	+40.4%	광학기업 스타맨옵티컬과 \$285M 규모의 합병 계약 체결 및 부채 \$92M 전액 상환 계획 발표. 합병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 사업 진출 및 방산·로보틱스 분야로의 확장 기대